

폭염으로부터 학생안전관리 강화

도교육청, 폭염 대책 수립... 학생 행동요령 교육·실외수업 대체 계획 등 안내 학교 전기요금 부담 등 어려움 발생 않도록 학교기본운영비 81억 추가 지원

올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폭염피해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학생·교직원의 운영 질을 높이고,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2023년 폭염 대책을 수립,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 등 대응체계 유지 및 폭염시 대응 매뉴얼을 사전 숙지하도록 했다. 또 폭염으로 인한 학생·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특보 시 실외 활동 자체 또는 금지, 단축수업이나 휴업을 검토하여 조치하는 등 학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학생들에게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행

동 요령을 교육하도록 했다. 폭염 대응 학생 행동요령으로는 △더운 시간대에 실외활동 자제 △최대한 햇볕을 피해 그늘로 걷기 △모자나 양산으로 햇볕 가리기 등이 있다. 특히 학교에서는 얼음팩·생리식염수 등 응급처치 물품을 구비해야 하며, 폭염 발생시 실외수업 대체 계획을 마련하고, 폭염 특보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단축수업, 휴업 등을 검토·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교육청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 81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최근 이상 기후로 폭염발생 시작일이 빨라지고 폭염일수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폭염 대비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반값 커피 드시고 기말시험 잘 치르세요”

전북대 총장·총동창회 학생 대상 쿠폰 행사 추진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과 총동창회가 학생 대상 '기말고사 반값커피 쿠폰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학기 중간고사 간식나눔에 이어 기말고사 기간에도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양 총장과 총동창회가 반값커피 쿠폰 행사를 마련했다. 학생들에게 제공된 반값커피 쿠폰은 3천 매로, 8월 8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직접 생활협동조합 잇치미 앱을 통해 매장 4곳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쿠폰 사용기간은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간이다. 양오봉 총장은 “공부에 열정이 없으면 우리대학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학기 마지막 시험 잘 치르고 한 학기를 잘 마무리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기현 학생(경영학과)은 “늦도록 공부하면서 피곤하고 지친 시험 기간, 반값커피가 큰 힘이 되어 준 것 같다”라며 “학생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려는 총장님과 총동창회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보직자들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12일 국립 입실 호국원을 찾아 순국선열을 참배했다.

호국 보훈의 달... 전북대, 호국원 찾아 순국선열 참배

35사단 찾아 300만원 상당 체육기자재 등 물품도 기증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보직자들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12일 국립 입실 호국원을 찾아 순국선열을 참배했다. 이날 양 총장을 비롯한 전북대 보직자들은 호국원에서 현충탑을 참배했고, 6·25 참전 군인이 안장돼 있는 전북대 결연 묘역을 찾아 헌화했다. 전북대는 지난 2019년 입실 호국원과

국립묘지 1사 1묘역 가꾸기 협약을 맺었다. 국가에 헌신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결연 묘역을 정하고 매년 대학 참배와 환경정화 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호국원 참배에 이어 양 총장 등 보직자들은 이날 전주 35사단도 방문해 장병 격려를 통한 국가안보 및 나라사랑 의식을 고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재훈 기자

특히 전북대는 35사단에 장병들이 사용할 수 있는 300만원 상당의 체육 기자재 등의 물품도 기증했다. 양오봉 총장은 “지역과 조국의 안녕을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장병을 격려하는 일은 지역과 함께 글로벌대학으로 나아가는 전북대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 발전을 이끄는 거점국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에 폭넓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교육문화회관

'홍보나래 서포터즈' 운영

전주교육문화회관(관장 이현규)은 전북교육 핵심 정책을 널리 알리고 회관의 인식도 제고를 위해 '미래교육에 날개를 달는 홍보나래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포터즈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회관 누리집(https://lib.j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오는 14일까지 신청접수하면 된다. 소셜미디어(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를 활용해 전주교육문화회관 소식을 알리는 사립이던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가족 서포터즈 5팀(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 2인 1팀) △청소년 서포터즈 5명 △일반 서포터즈 5명 총 20명을 모집한다. 전주교육문화회관의 온라인 홍보대사인 서포터즈는 활동에 따른 소정의 월급과 함께 봉사활동 시간 인정,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웰컴키트(보조배터리 등)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선발된 홍보 서포터즈는 7월부터 11월까지 회관 주요 행사와 프로그램을 개인의 관점을 담은 체험형 콘텐츠로 제작하여 개인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 된다. 전주교육문화회관 이현규 관장은 “최근 트렌드에 맞춰 쌍방향 소통의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홍보 서포터즈단을 통해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문화회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교육청, 소년체전 포상 격려회

전북선수단, 총 68개 메달 획득... 입상학생 등 격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2일 오후 전주 N타워 컨벤션홀에서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포상 격려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5월 27~30일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린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기량을 뽐낸 선수와 지도자, 학교장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북선수단은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2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30개 등 총 68개의 메달을 획득

하며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육상·수영·체조 등 기초종목과 축구·배구·핸드볼·테니스·소프트테니스 등 개인단체종목과 단체종목에서 선전한 것은 물론 학교 육성종목으로 운영되던 전라중학교 야구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고 2년 만에 금메달을 차지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참가한 우리 학생 선수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 또 대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도와주신 관계자들

들의 노고와 희생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은 학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자신의 진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대비해 종목별 강화훈련비 지원, 메달 유망 종목 합동 강화훈련비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학생선수에게도 훈련비를 지원하여 경기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김재훈 기자

소통·협력 통한 실천적 경제교육 실현

지평선고,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지평선고(교장 조명규)는 지난 9일 지평선고등학교 지혜의 뜰에서 지평선고등학교 다함 사회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실시했다. 지평선고등학교 다함 사회협동조합은 학생건강증진 사업, 학생 교육 지원 사업, 학생 복지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창립총회는 5명의 설립동지자와 학생·학부모로 구성된 5명의 참관인, 교장,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사, 전북교육청 감독관이 함께했으며 정관(안) 승인 등에 관해 심의했다.

지평선고는 주변의 생활편의시설 부족으로 학생들이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의지를 밝혔으며, 2022년 학교협동조합 관심학교를 거쳐 2023년 학교협동조합 준비학교로 지정됐다. 준비학교로 지정되기 전부터 교내 비즈쿨 프로그램을 4년간 지속해왔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들 스스로 기획·운영하며 협동조합에 대한 탐구와 협동하는 방법을 배웠다. 또한, 발기인 모집과 창립총회 준비단 활동을 통해 이날 창립총

회를 열게 됐으며, 향후 교육부 인가 신청을 진행해 2023학년도 중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립동지자 문서진(2학년) 학생은 “학교협동조합의 첫 발걸음을 함께 하게 되어 설레고 학생·교직원·학부모 및 지역주민과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학교협동조합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저술출판지원’ 최종 선정

전주대 한국어문학과 이용욱 교수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한국어문학과 이용욱 교수가 2023년 한국연구재단이 공모한 ‘저술출판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우수한 연구자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저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연구 경험 축적 및 학술성과 확산을 도모하고, 연구성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여 대중과 학계의 교류·이해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7년부터 시작된 ‘저술출판지원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의 대표적인 학술·인문 사업이다. 이 교수는 ‘기술편집시대의 매체 미학’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진행하며,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인문학술서를 출판하게 된다. 이 교수는 ‘기술편집시대’와 ‘기술편집예술’이라는 개념을 학계 최초로 제안하고 학문적으로 정립한 대표적인 학자로, 20세기 초에 등장한 영화예술이 사진기와 축음기라는 복제 기술의

도움을 받아 탄생했듯이 21세기 새로운 예술은 컴퓨터와 인터넷, 생성형 AI 같은 편집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기왕의 예술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체화 될 것이라 주장한다. 이용욱 교수는 앞으로의 미학 연구는 문학, 음악, 회화 같은 분과 예술을 넘어 기술과 예술의 공진화 과정에서 도구의 일원화로 자연스럽게 통합될 종합예술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기술편집시대의 매체미학 연구’가 중요한 토대 연구가 될 것이라 말했다. 이용욱 교수는 전주대 인문대학장, 이야기문화연구소장, 국어문화회장, 한국언어문화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현대언어문화회장을 맡고 있는 중경건축과기직업대학 교수로 2007년부터 시작된 ‘저술출판지원사업’을 한국연구재단의 대표적인 학술·인문 사업이다. 이 교수는 ‘기술편집시대의 매체 미학’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진행하며,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인문학술서를 출판하게 된다. 이 교수는 ‘기술편집시대’와 ‘기술편집예술’이라는 개념을 학계 최초로 제안하고 학문적으로 정립한 대표적인 학자로, 20세기 초에 등장한 영화예술이 사진기와 축음기라는 복제 기술의

글로벌 인재 육성 ‘디딤돌’

전주대-중경건축과기직업대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이하 전주대는 지난 9일 중국 중경건축과기직업대학교(총장 리우둥유엔)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협의를 위해 전주대를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양교는 중경건축과기직업대학교 내의 경영학과와 인공지능학과의 학생들이 전주대의 일부 교육과정과 한국어 등을 중국에서 이수하고 3학년 또는 졸업 후 전주대학교에 편입하는 과정에 대해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중경건축과기직업대학교는 2018년부터 전주대와 협정을 체결하고 교환학생을 파견했으며, 팬데믹으로 인해 교류가 3년간 중단됐으나, 항공 길이 열리며 전주대를 가장 먼저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교는 글로벌 학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했다. 중경건축과기직업대학교는 전주대가 신기술 분야의 차세대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



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에 선정돼 인공지능과 실감미디어 분야에서 교육부의 인정을 받는 부분과 경영학부 내 금융보험학과, 물류무역학과, 부동산국토정보학과, 회계세무학과, IT금융학과 등 전문화, 세분화된 전공에 매료되어 전주대의 두 학과를 선택했다고 했다. 전주대는 이번 계기로 한국어와 전공기초를 갖춘 유학생을 유치해, 졸업 후 우수한 인재들을 전북도 지역에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재훈 기자

‘어르신들 스마트폰 활용 도와드려요’

전주대 보건관리학과 봉사동아리, 찾아가는 스마트 활용 교육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보건관리학과 봉사동아리 재학생 20명은 지난 5월 26일, 6월 9일 2차례에 걸쳐 성에 노인복지센터에서 스마트 활용 교육 및 건강증진 운동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소외계층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활용을 돕고자 재학생과 어르신의 1:1 맞춤형 교육으로, 1차시에는 스마트폰 기본 활용 방법, 카카오톡 소통하기, 카메라와 갤러리 사용법을 2차시에는 만보기, 알람 설정, 일정 등록 등 어르신들의 요구에 따라 쉽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건강증진과 치매 예방 체조를 함께 진행해 어르신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보건관리학과는 연말까지 정기적으로 방문에 스마트폰 활용교육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중선 학생보건관리학과 4학년은 “스마트 폰 활용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즐거웠으며, 어르신들이 많이 웃으며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가 되도록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안미숙(성에노인복지센터) 센터장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던 중 손자 같은 학생들의 1대 1로 도움을 받으셨다. 어르신들이 정말 고마워하며 좋아했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정지나(보건관리학과) 지도교수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을 섬기는 우리 학생들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지도한 보람을 느꼈다. 지속해서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의료기관과의 산학연계를 활발히 추진하며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주대 보건관리학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보건 의료정보관리 및 보건교육 분야 전문가인 보건교육사를 양성하며, 국가 공인 면허 자격증 합격을 위해 최상위를 달리고 있다. /김재훈 기자